

18. 유대의 포로와 하나님의 섭리(2)

2012. 4. 29.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유대의 포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롬11:11,12]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총만함이리요.

1.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만 내용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부터 먼저 하면서 다니엘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본문을 봉독했어도 늘 본문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생각하시면 본문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전체로 나누는 말씀 중에 본문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본문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시려는 구원의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방에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아주 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다목적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우침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그들이 포로로 간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그들도 구원의 복음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읽었던 동일한 본문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총만함이리요.”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고 그 일로 이스라엘이 분발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 나게 한다.”는 말은 자극을 받아 분발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흥분을 자아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 되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고, 연이어 일어난 페르시아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겠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가 되었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했다면 훨씬 빨리 복음 사업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3:33을 한 번 읽으실래요?

[렘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2. 목사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방 바벨론에 가서 사람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했군요. 다니엘서에 세상 제국들의 역사가 예언되었지만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역사적으로 증거되는 진행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답: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이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 지난 시간에 세상이 선택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로 끝맺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예,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세상이 준비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에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 속에 성장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선생이었던 하박국은 이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만 충성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도록 이끌었고 그들은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사람 성전으로서 잘 준비된 것이지요. 그들이 선택되어 왕립 박사원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인격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4. 이름 바꾸는데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미국식 이름을 만드는 사람이 많고 자녀들은 거의 미국식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답: 미국은 워낙 다인종 국가라서 특이한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식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미국식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이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엄청난 의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이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는 뜻이며 또는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아사라는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 네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다니엘서 전체의 계시적 의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에게 은혜로우셨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을 도우셔서 본토로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신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5. 바벨론식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벨은 바벨론 주신의 이름입니다. 혹은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느보라고도 하는 바벨론 신입니다. 그 뜻은 벨이 그를 보호한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는데, 월신 경배자라든 뜻이라고 하며,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는데 비너스에게 속한자라는 뜻이며 아사랴는 아벳느고인데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하니 벨이 보호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하니 달신을 경배하는 자로 대응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하니 비너스에게 속했다고 대응하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하니 느보의 종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사상을 파괴하려는 이름이지요. 이름은 사람을 인식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지요. 그런데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상대하면 당연히 바벨론 신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명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6. 이름을 바꾸는데 참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는군요. 그런데 유대 청년들에게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답: 다니엘 1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첫째가 바벨론 식 교육입니다. 다음이 바벨론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개명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대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전향시키려고 했습니다. 1장 4,5절을 보면 이런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으로 세뇌하고 음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민한 통찰력을 무디게 하고 종국에 가서 그들이 인격이 바벨론 인격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벨론 식으로 바꾸는 순서입니다. 교육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진화론을 기초한 교육이 100년 이상 진행되니까 사회의 모든 문화 기초가 다 진화론이 되었습니다. 현대 진화론 기초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성경적 창조론이 자리 잡을 정신적 학문적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은 어떻습니까. 잘못 길들여진 미각에 종이 되어 뇌에나 세포에 백해무익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인격이 바벨론적 인격이 됩니다. 개명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계획은 주도면밀합니다. 게다가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썩어져가는 옛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들은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경향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상이 자리 잡기 딱 알맞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상의 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대단한 결단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처지였겠지만 음식은 올바르게 먹기로 뜻을 굳게 정한 것입니다. 모든 체세포와 신경

세포가 정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수행하면 바벨론 교육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 음식물 섭취가 인간의 지능과 이해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답: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세포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계속 공급하면 세포들이 상하지요. 그래서 병이 드는데, 일반 체세포가 상한다면 신경세포도 상할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체세포는 영향을 입지만 신경세포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경세포가 체세포보다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당장 신경세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술뿐만 아니지요. 마약이나 커피나 차 같은 것들은 제일 먼저 신경세포를 건드립니다. 다른 음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것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음식물을 통하여 사람을 부립니다. 파블로프 박사의 조건반사 실험이 바로 음식물이 생물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한 것이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실시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을 찾기 위하여 연구하게 한 것인데 그의 이런 실험을 통하여 사람을 먹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동물들도 보십시오. 그 큰 범고래가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바로 먹이입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지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유대 청년들에게 바로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 사상 소유자들이 되게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8.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음식문제가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네요. 인간 생활과 지성과 사상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문제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답: 당연합니다. 부모, 특히 엄마들이 아기에게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두는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닙니까. 엄마의 사랑이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시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목사님이 마태 7:9~11을 좀 읽으시지요.

[마7:9~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것은 일차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음식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음식물에 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결단한 그 결단으로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신약성경에 음식물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지시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물 이야기는 주로 구약에 있는데, 다니엘서도 구약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음식물 문제가 중요한 것일까요?

답: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몸은 음식물에 의하여 형성되잖아요.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있나요? 여전히 같은 구조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지시를 따라 먹고 마셔야 건강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구성과 구조가 동일하다면 음식이 끼치는 영향이 동일하지요. 요즘은 사회에서도 웰빙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눈을 뜬 것이지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은 진리지요. 성경의 신앙은 세상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은 마태7장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안다고요. 그렇거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분이시지요. 그러면 건강과 지능 문제에 대하여서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하여 성경의 사상과 지침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나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은 성소봉사와 관련된 내용이지, 일상 식생활에 대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히브리서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지요.

10. 히브리서에 분명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 히9:9,10을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히9:9,10]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장막은 땅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제도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와 관련된 예식적인 것은 다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성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행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16,17에서 말씀합니다. 또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골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또 이야기 하겠지만 그것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시점이 오면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음식 이야기인데, 장래 일의 그림자로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9:9,10에 말한 같은 것이지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음식을 아무렇게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의 사실을 식생활의 음식물에 적용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식생활로서의 음식은 차라리 마7:9~11이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들의 음식물을 음식물이 되도록 따로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창1:29절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은 창조주의 명령으로 사람을 위한 음식물을 창조했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음식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창조주께서 창조 주일에 사람을 위하여 음식물을 창조하여 지정하신 것이고, 둘째는 노아 홍수 후에 세상이 피폐해졌을 때 정결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음식물과 허락한 음식물입니다. 이 허락함 것에 대하여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허락한 음식물인 동물들의 종류로 명시해 주셨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궁중 학교에서 창조한 음식을 먹겠다고 뜻을 정하여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10배나 뛰어났고 용모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올바르게 섭취함으로 맑은 정신력과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11.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하게 하셔서 바벨론화 시키려는 사단의 음모에서 건져주시고 맑은 몸과 정신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